
아버지와 바다

장승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1.

물수제비

울적할 땐 바닷가에서
수평선 향해 물수제비 띄워 보.
하나, 둘, 셋...
슛! 슛! 슛!...
납작돌이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어디서 나타났지?” 하며
바다는 금세 안아 버리고

그 순간 한 순간씩
기쁨으로 피어나는 걸 보렴.
하얀 웃음이 동글동글
깔깔거리지 않니?

아하! 그래서 하얀 파도가
그 웃음 보려고 자꾸자꾸
밀려오는구나.

내가 쓴 이 동시를 읽을 때마다 내 고향(애월읍 애월리)의 싱그러운 바다와 늘 걱정과 걱려의 마음으로 잔잔하게 얘기해 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

우리 집 대문만 열면 바로 길 앞으로 연결된 선착장과 포구 밖으로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가 있었다. 물이 가득 밀려오면 마음도 푸근하고 심적인 포만감이 느껴지지만 썰물 때에는 갯벌 바닥이 드러나 허전함을 느끼게 하던 선착장은 어린 시절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이제 왁사?”(이제 오니?)

해가 질 무렵이면 대문 앞 돌 의자에 앉아 바다를 응시하며 기다리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우리를 따스한 눈으로 맞아 주곤 하시던 우리 아버지. 척추 만곡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학교가 끝나고 귀가하는 우리들을 마중하는 것은 당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리라.

장난감도 흔치 않았던 그때, 아버지는 두 남동생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라도 선사하려는 듯 길가의 납작한 돌맹이를 주워 물수제비를 띄워 주시기도 하셨다. 선착장에 바닷물이 가득 밀려와 잔잔한 수면을 이루면 몸을 기울여 납작한 돌맹이를 수면에 수평으로 미끄러지게 하듯 힘껏 던진다.
“슛!”

던질 때마다 놀랍게도 돌맹이가 동글동글 무늬를 그리며 징검다리 건너듯 물 위를 퐁퐁퐁 튀어가지 않는가? 잔잔했던 수면은 금세 파문을 일으키며 돌맹이의 발자국을 그려 놓는다. 수면을 가로지르며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히듯 동글동글 돌맹이가 물 위를 달려가며 딛는 발자국이 만드는 물수제비들……. 아버지가 한 번 시범을 보이면 동생들은 물수제비의 슛

자를 세며 계속 띄워 달라고 조르곤 했다.

방학만 되면 포구 안은 동네 아이들의 물 잔디밭이었다. 물 위에서 기기도 하고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며 물 위에 가만히 떠 있기도 하고, 이리저리 헤집고 물싸움하며 노닐던……. 자동차 바퀴로 쓰였던 낡고 검은 고무 튜브는 탁월한 놀이 기구였다. 누군가 고무 튜브를 들고 나타나면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무 튜브에 옹기종기 매달려 수면 밑에서 발로 노를 저어 가며 물 위를 다녔다. 그러다가 누군가 짓궂게 고무 튜브를 장난으로 ‘확!’ 뒤집으면 모두가 물속으로 풍덩 잠겨 머리도 젖고 물도 먹으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게 싫증이 나면 편을 갈라 손바닥으로 물을 끼얹으며 물싸움도 하고, 일정한 목표를 향해 누가 먼저 빨리 헤엄쳐 가나 내기도 했었다.

수심이 아주 깊어지면 닻줄을 매는 곳에 올라와 줄지어 한 사람씩 “월! 화! 수! 목!…….” 외치며 물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들던 그때. 갑작스레 입수(入水)하면서 일으키는 수정 구슬 같던 하얀 포말, 물소리, 웃음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2.

아주 무더운 여름날.

어머니는 밭에, 아버지는 사무실에 나가셔서 나는 집에서 아기구덕을 흔들며 막내가 어서 잠이 들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윙이 자랑, 윙이 자랑…….”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의 속도, 4/4박자의 단조로운 제주도의 차장가를 부르며 구덕에 누인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아기만 없으면 나도 친구들과 바다에 뛰어들어 시원하게 놀 수 있을 텐데…….’

헤엄치며 즐겁게 노는 동네 친구들의 재잘거림이 자꾸만 나에겐 아기에 대한 원망으로 치환되고 있었다. 나의 뜻을 전혀 몰리주는, 좀처럼 잠들지 않는 알미운 우리 막내. 아기구덕을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들다 보니 내 자장가 소리와 한여름의 오후가 나를 잠깐 잠들게 했나 보다.

“푸시럭, 텅!”

의미한 의식 속에서 갑자기 집안의 고요를 흔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눈을 비비고 떠 보니 아빨싸, 아기구덕이 엮어져 있었고 구덕 밑에 깔아 두었던 보릿짚들이 마구 어지럽게 쏟아져 나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어린 마음에도 혹시 아기가 질식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얼른 아기구덕을 바로 놓고 보릿짚을 담고 아기를 다시 구덕에 눕혔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때까지도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

“휴우…….”

그 후부터는 아기 때문에 뭘 못 한다는 원망이 짝 사라져 버렸다.

3.

어느 하루는 아기를 가까스로 채워 놓고 대문 앞에 나와 보았다. 그날도 밀물 때여서 포구 안은 물로 가득하였다. 다섯 살 된 남동생인 승욱이가 물가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물 쪽으로 드리우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노는 광경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은 자기 키보다 깊은 물에서 헤엄치며 놀 줄 모르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라.

“승욱아! 저기 가서 함께 놀고 싶은 모양이구나. 아직은 헤엄 못 쳐서 안 돼.”

“…….”

대답이 없는 동생의 얼굴을 보니 긴 눈썹이 감실거리고 있었다. 이러다

가 자칫 물속으로 빠질까 걱정이 되었다.

“승욱아! 줄리면 집에 들어가서 자렴. 이리다가 물에 빠질라.”

“알았어, 누나. 난 안 좋아.”

두세 번을 이야기해도 꾸벅꾸벅 졸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마침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는 집으로 들어와 다시 아기구덕을 흔들고 있었다. 잠시 시간이 흘렀을까

“재철이 아들, 물에 빠졌지!”

누군가의 급한 외침이 들렸다.

‘재철이 아들이라면 우리 남동생이 아닌가!’

뒤이어 다급히 뛰어가는 발소리들……. 나는 다급히 맨발인 채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물가 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갔다. 앞집에 사는 아저씨가 흠뻑 젖은 몸으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내 남동생을 안고 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누나, 나 물에 빠전. 엉엉.”

물 젖은 몸으로 나에게 찰싹 달라붙어 울던 내 동생. 무척 겁이 난 모양이었다.

“휴, 다행이야.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무척 애지중지하는, 두 딸 뒤에 얻은 남동생인 터라 죽을 고비에서 살려 준 그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동생은 깊은 수심을 향해 유난히 큰 머리를 조아리면서 졸다가 어느 순간 무게 중심이 쏠려 그만 물속으로 빠져 버린 것이다. 때마침 밭에 다녀오시던 그 아저씨가 발견하고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남동생을 끌어 올려 주신 것이었다. 잠시나마 물에 빠졌던 내 남동생은 그때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발버둥 치며 살려고 노력한 경험 때문인지 금방 해엄을 배우게 되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지만 웃음이 난다.

4.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지금은 없어진 북제주군이라는 행정구역의 고산리. 거기에는 날마다 푸른 바다 속으로 지는 해의 노을을 아름답게 보여 주는 수월봉이 있다.

해질 무렵 차귀도를 보러 갔다가 수월봉에 올랐다. 마침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라 태양은 그 펼쳤던 햇살의 날개를 거두며 마지막 잔영을 바다에 드리우며 수평선 가까이를 선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노을 속에서 아버지가 추억으로 늦은 걸음으로 오고 계셨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는 대문 앞 돌 의자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던 나를 불러 세우셨다.

“승련이는 저 노을을 보면 무슨 생각하니?”

“.....”

아버지께서 갑자기 물어보신 데다 물으시는 의도를 몰라 나는 잠자코 발끝만 바라보았다.

“특별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고 할 테고, 꽃에 관심이 많고 생각하는 사람은 흐드러지게 핀 꽃밭으로, 몸이 아주 피곤한 사람은 그냥 저 노을을 깔고 드러눕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

사물에 투영되어 연상되는 생각이나 느낌은 사람이 처한 현실이나 마음의 빛깔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는 것, 그것은 백이면 백 가지 사람 수만큼 다르다고 그것은 자기의 경험과 사고의 반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대략 그런 내용의 말인 것 같았다. 지금이야 반평생의 연륜 이상을 살고 있어 쉬이 알겠지만 지식이나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거의 없던 나의 중학교 시절에 들은 아버지의 말씀은 내 생각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사고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른다.

5.

때로 아버지는 내가 집에 거의 도착하는 것도 모르고 우수에 잠긴 표정으로 홀로 노래를 부르시곤 했다.

비 오는 낙동강에 저녁노을 흠어지면
흘려보낸 내 청춘이 눈물 속에 떠오른다.
한 많은 반평생에 눈보라를 안고서
모질게 살아가는 이내 맘을 저 강은 알고 있다.

동네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셨고 반장과 수석을 도맡아 하셨단다.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는 유명하였던지 그 당시 초등학교 관사에 사시던 일본인 교장 부부는 우리 할머니 댁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해 달라고, 일본에 갈 때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고 졸랐다고 하셨다. 체육도 곧잘 하시던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늘 하던 철봉에 올라 회전 운동을 하다가 그만 봉을 놓치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야 말았다. 그때부터 척추 장애를 앓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청소년기에 좌절과 방황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아를 바이올린과 기타로 추스르며 보내야만 했단다. 만약 일본인 교장의 양자로 일본에 가 버리셨으면 아버지는 그 후 어떤 인생 역정을 보내셨을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철봉에서의 낙상으로 아버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자기의 큰 포부와 희망을 활짝 펴지도 못한 채 결혼하면서 여섯 식구의 가장으로 삶을 헤쳐 나가야 했다. 그 생의 순명(順命)은 당신을 험난한 질곡으로 내몰았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일기장에는 당신이 감당하기 벅찬 격정을, 말 못하는 애환을 몰래몰래 토로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혼자 당

신이 즐겨 부르던 '저 강은 알고 있다'라는 이미자의 노래는 각별한 의미로 자기 생을 위로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었으리라.

6.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빙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면 아버지는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을 해 주셨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

“여자로써 몸가짐과 언어는 이래야 미움받지 않고 살 수 있다.”

“어디에 가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스운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눈물겨운 이야기, 듣고 나면 생각에 잠기게 되는 이야기,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이야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직접 보고 겪은 사례 중심으로 재미있게 이야기의 주인공을 흉내 내며 풍부한 감정을 실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다 보면 그 이야기에 빠져 밥그릇의 밥알이 말라붙을 때까지도 줌처럼 그치지 않아 우리들은 밥상을 치우거나 설거지도 못해 어머니의 핀잔을 듣기도 했었다.

당신이 눈으로 본 세상은 어린 우리가 보는 또 다른 세계의 창이었다.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우리들에게 해 주셨던 이야기는 우리들 4남매의 사고와 행동과 언어를 형성해 가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장녀인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는, 나의 육체적 성장을 어느새 감지하셨는지 어머니께 일러서 깨끗한 생리대와 가슴을 위한 브래지어를 갖추도록 해 주신 우리 아버지.

“여자의 순결은 절대 중요하지만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 겁박의 상황에서는 목숨이 더 우위의 가치란 걸 알아라. 만약 네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즉시 아버지에게 말해야 한다.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주마. 나는 늘 우리 딸 편이란다. 걱정 말고 얘기하렴.”

혹여 내가 성장하면서 다른 예기치 않은 일로 온전한 성장에 방해를 받는 일이 있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를 지지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그 자상한 교육이 있었기에 나도 이만큼이나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정주는 “나의 8할은 바람이 키웠다.”라고 하지만 나의 8할은 아버지가 키워 주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가까이 살아서 어릴 때부터 물과 친해진 나는 5학년이 되면서부터 아예 할머니께 놀라 테왁을 만들어 바다에 뛰어들어 물질을 하였다. 상체를 위로 올린 끌어올렸다가 머리를 바닷속으로 잠입시키는 순간 해수면을 발등으로 치며 두 길이나 되는 바닷속을 자맥질하여 들어간다. 물속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눈앞에서 나를 반긴다. 유연한 몸으로 하늘거리는 미역 줄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形形色색 해초들과 여러 모양의 물고기들이 떼 지어 몰려왔다 몰려간다. 누가 더 많이 캐나 동네 언니들, 벗들이랑 경쟁을 하며 소라와 미역을 따고, 해삼과 오분자기는 어디에 숨었나 숨바꼭질하며 바닷속을 살피며 물질을 하던 그때. 내가 캐던 해산물 중 소라들은 중간 상인에게 가서 저울대에 올려지고……. 그 무게만큼의 노동의 대가는 공책을 살 수 있는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런 추억들을 만들며 성장하던 그 시절엔 내 영혼이 보다 따스하고 순수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잔잔한 바다를 볼 때면 바다 한가운데서 늘 걱정하고 격려하며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의 따스한 눈빛이 뚝단배처럼 떠오르고, 바다 깊은 곳에서 나만의 보물을 잡듯 해산물을 따던 내 청소년 시절이 어울렸던 동네 친구들의 모습들과 함께 자꾸 떠오른다.

